아날로그 감성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개봉

"만나지 않아도…하염없이 기다려도 좋아요"

〈강하늘-천우희〉

지루한 일상에 놓인 삼수생 강하늘
언니에게 날아온 편지 읽은 천우희
온라인제작발표회서 애피소드 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공감대의 따스한 상상!"

28일 개봉하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감독 조진모·제작 아지트필름)을 주연 천우희와 강하늘은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의 '초스피디'한 소통 방식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다. 비록 모호하더라도 "하염없이" 떠올리던 상상의 영역도 이젠 사라져 버렸다. 두 배우의 언급은 영화에 대한 소개를 넘어 과속의 직접적 접촉이라는, 시절의 각박함에 대한 아쉬움이라 할 만하다. 천우희와 강하늘은 3월31일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서 지나간 촬영 과정을 돌이키며 애틋한 감성을 다시 드러내 아쉬움을 채워갔다.

영화는 지루한 일상에 놓인 삼수생(강하늘)이 오랫동안 기억해온 친구에게 무작정 편지를 보내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픈 언니에게 날아온 편지를 읽게 된 여자(천우희)는 대신 답장을 보낸다. 편지를 다리 삼아 두 청춘은 서로에게 다가간다.

단, 규칙을 내세웠다.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하지만 삼수생은 "비 오는 12월31일 만나자"는 조심스런 제안을 건넨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을까.

편지를 매개로 하는 만큼 영화는 두 캐릭터의 내레이션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둔다. 강하늘은 "개인적으로 만난 것보다 좋았다"면서 "청각적으로 예민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내레이션을)들으며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을 연기한 천우희는 "예전에 편지나 전화로 약속을 정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엇갈리기 쉬웠다"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공감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감성을 복기하는 상상과 기다림"을 말했다.

이쯤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성장해가는 두 청춘의 애틋한 감성이 묻어난다. 감염병 시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오랜만의 멜로 감성까지 기대하게 한다.

두 배우에게도 이번 무대는 짧지 않은 관객과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줄 전망이다. 강하늘은 2017년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 이후 4년 만에, 천우희는 2018년 '우상' 이후 3년 만에 각각 본격 상업영화로 승부수를 띄운다. 그만큼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이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안겨줄 전망이다.

강하늘은 극중 배경이 된 2000년대 초반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어땠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했다"고 말했다. 배우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에 잔뜩 얹었다는 설명인데, 마침 연출자 조진모 감독은 "관객이 경험했을, 느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자신감을 표했다. 그만큼 배우들이 자신들의 실제 감성을 표현하는 사이 관객이 안게 될 엇비슷한 감흥의 크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28일 개봉하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주연한 천우희(왼쪽)와 강하늘이 3월3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보고회에 앞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주)키다리이엔티·소니픽쳐스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할아버지 박인환(왼쪽)과 스물셋 꿈 앞에 방황하는 발레리노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아낸 tvN '나빌레라'.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

막장 판 치는 안방극장 무자극 '나빌레라' 감동

데뷔 56년차 박인환의 발레 도전기
웹툰 섬세한 감성, 생동감있게 전달

'막장' 코드가 넘쳐나는 방송가에 과감하게 '무(無)자극'을 내건 드라마가 있다. 22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나빌레라'이다. 안방극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발레를 소재로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청춘스타들을 내세운 다른 작품들과 달리 올해 데뷔 56년차 배우 박인환(76)을 당당히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시청률은 아직 3%대(닐슨코리아)에 머물지만, 따뜻한 감성을 뚝심 있게 쌓아올리며 시청자 사이에 점차 입소문이 나고 있다.

드라마는 70대에 발레의 꿈을 찾은 노인과, 방황하는 20대 발레리노의 성장기인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연재된 웹툰은 8800만 조회수로 큰 인기를 모았다. '나빌레라'는 웹툰의 섬세한 감성을 잘 살려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원작 팬들로부터 "만족스러운 실사화"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발레리노 송강의 매니저 겸 제자인 박인환이 있다. 뼛뼛한 몸에도 발레를 배우는 매 순간 설레어하는 표정이 압권으로 꼽힌다. 그동안 주인공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주변 캐릭터에 머물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미니시리즈 주연"을 맡아 뒤늦게 도전의 꽃을 피우는 주인공과 닮아 화제다.

"이 나이에 발레는 진짜 도전"이라며 매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 틈틈이 반복할 만큼 열정을 다 한 덕분에 자연스러운 장면도 탄생시켰다. 발레 선생으로 출연하는 송강을 보려다 박인환에 '입덕'했다는 시청자 반응도 줄을 잇는다.

시청자에게 아직 낯선 발레 이야기를 담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도 돋보인다. 국립발레단 출신 발레리노 유회웅 안무가가 참여해 관련 장면을 완성했다. 그는 박인환 등 출연자들도 직접 가르쳤다. 그는 29일 "발레의 아름다움과 남성 무용수들의 포인트 안무가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발레의 바탕이 되는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시청자에게 낯익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파키타' 등이다. 임하영 음악감독은 "꿈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도록 하되 감동을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기존 음악뿐 아니라 짧은 창작 발레곡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하정우~박기웅…'아트테이너'가 대세

하정우는 개인 전시회만 10여 차례
하지원·박기웅 등도 미술작가 데뷔

최근 '아트테이너'가 대세다. 미술(Art)과 엔터테이너(Entertainer)를 합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든 주인공들, 하정우를 비롯해 하지원, 박기웅, 김규리, 구혜선 등이 연기뿐 아니라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뽐내고 있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성을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지원은 3월30일 서울 강남구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청담쇼룸에서 개막해 6월19일까지 여는 그룹전 '우행'(牛行) 전에 소를 주제로 한 '슈퍼 카우' 연작 3점을 내놨다. 그동안 인터뷰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작업을 취미라고 밝혀왔지만, 전시회에 작품을 본격 출품해 내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앞서 이미 10여 차례 개인전을 선보였던 하정우와 가수 구준엽 등 동료 연예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박기웅도 최근 미술작가로 데뷔했다. 3월24일 '한국회화의 위상전'에 인물화 '이고'(Ego)를 출품해 특별상인 'K아트상'을 수상했다. 서울 강남구 럭셔리판다에서 일부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대진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해 꾸준히 가꿔온 그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최근 매니지먼트사 마운틴무브먼트와는 미술작가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기까지 했다. 이후 전시회는 물론 다른 작가들과 컬래버레이션 작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기자 김규리도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 일백헌에서 열리는 '신, 문자도'와 5월23일까지 오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삼월의 삼인' 전에 미술작가로 참여한다. 그동안 단편영화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던 구혜선 역시 최근 선보인 영상 전시 '서태지의 lyrics 아래로 구혜선의 newage' 전을 이달 다시 선보인다. 그는 최근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좋다"며 "(미술작가 활동은)연기를 잘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기웅(왼쪽)·하지원 등이 미술작가로 데뷔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하지원이 소를 주제로 그린 '슈퍼 카우' 시리즈 중 하나. 뉴시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올 봄 '벚꽃 연금' 주인공은 브레이브걸스

역주행곡 '롤린' 봄바람 타고 인기
벚꽃엔딩·봄날 등 도 상위권 장악

봄, 역주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하얀 벚꽃 잎이 하늘거리면 각종 음원사이트에서는 지난 노래들이 스멀스멀 다시 피어오르며 봄을 알려 음악팬들의 마음을 간질인다. 특히 올해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롤린'으로 인기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며 다른 가수들의 노래까지 봄바람에 실어 날리고 있다.

'롤린'에 이어 '운전만 해'까지 음원차트에 올려놓으며 역주행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사진제공 |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3월31일 현재 음원차트에서는 '벚꽃 연금'이라 불리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2012년)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봄날'(2017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2018년), 아이유의 '블루밍'(2019년), '내 손을 잡아'(2011년),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2019년),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2012년) 등이 상위 50위권에 올랐다. 벚나무 가지에 핀 흰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련함과 풋풋함을 안겨주는 곡들로 꼽힌다.

올해 봄 시즌엔 특히 '역전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브레이브걸스가 '롤린'을 시작으로 지난해 여름 발표한 '운전만 해'까지 음원차트에 재진입시키는 등 '숨겨진 명곡 다시 듣기' 열풍을 몰고 왔다. 과거 군 부대 위문공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브레이브걸스와 EXID는 '밀리터리'(군)와 미국 빌보드 차트를 합친 '밀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상파 유튜브 채널까지 옛 노래 다시 듣기 코너를 개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MBC '올더케이팝' 채널은 '밀보드 차트 노래 모음'을 통해 걸스데이, EXID, 헬로비너스, 라붐의 곡을 들려준다. 'KBS Star TV'는 골든차일드, 온앤오프, 더보이즈, SF9 등 남자 아이돌 그룹의 비교적 덜 알려진 곡을 추천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